

# 소아 응급진료 체계 확대

익산시-원광대병원, 이달부터 휴일없이 매일·자정까지 소아 응급 진료 가능

익산시가 원광대학교병원과 평일 야간 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해 소아 응급 진료 격차를 해소한다.

시는 원광대학교병원과 함께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소아 진료실 개소를 기념하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은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 이 불편하지 않도록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원광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소아 진료 구역을 어린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쾌적한 진료환경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또한, 이달부터 휴일 없이 매일 자정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진들이 교대로 상주해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런 성과는 익산시가 소아응급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병원 측과 협의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한 결과이다.

시는 지난 1월 원광대학교병원과 소아 응급 진료 업무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 진료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원광대학교병원 소아 응급진료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며 "소아 응급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청렴한 조직문화를 더욱 강화하고자 '청렴 다짐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

## “공직자 품위, 청렴 실천에서”

익산시, 정현을 시장·간부공무원... 청렴 다짐 릴레이 캠페인

익산시가 청렴한 조직문화를 더욱 강화하고자 '청렴 다짐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정현을 익산시장을 시작으로 부시장·국장급 공무원 등 총 11명의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청렴 실천에 대한 다짐을 전 직원과 나누고 공유한다.

청렴 문구가 작성된 청렴 다짐 패널을 든 인증사진 및 영상을 2주 간격으로 내부행정망인 새행정시스템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익산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정현을 시장은 '공직자의 품위, 청렴에 대한 실천에서 비롯됩니다'라는 메시지로 청렴 실천에 대한 의지를 전파했으며, 직원들

에게 청렴의 의무를 다하도록 전했다.

익산시는 '청렴 다짐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간부공무원은 물론 시청 모든 직원이 청렴을 되새기고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패 없는 청렴 도시 구현을 위해 △청렴 추진단 운영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주의보 발령 등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수립해 공직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자리매김할 구상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청렴 다짐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 실천에 대한 의지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체납 지방세 끝까지 징수한다”

고액 체납자에 강력대응... 현장 중심 징수 활동 전개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

군산시는 3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동안 체납 지방세 정리특별액을 42억 원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도 경기 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지만 군산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배려하고 상습·고액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더욱 엄정한 징수를 예고한 상황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징수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하에 거주지 및 사업장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업을 통해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도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압류

하고, 압류한 자산은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세를 충당할 예정이다.

실제로 군산시는 작년 12월에 체납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시행했고, 이 중 체납자 1명의 거주지에서 나온 현금 및 고가 주류 등 6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압류한 자산은 올해 하반기에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현장'에 참석하여 매각할 예정이다.

시민단체과 서준석 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집중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군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각각의 자치단체에

인분율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때 첨부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인분 대상 법인이 안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행안부와 지자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

로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분납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영세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청년들 창업센터에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군산시의 예비 창업가·창업가들을 위한 '글로벌 이커머스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레드 오션이 된 이커머스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는 군산지역 창업가의 이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고 로컬 창업가의 성장을 견인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이커머스 역량강화' 사업의 모집 대상 및 인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군산인 예비

창업가·창업가로 총18명이다.

군산시는 선발된 창업가들에게 4월부터 7월까지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 교육 △온라인 마케팅 개설 및 상세페이지 기획 방법 등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지는 실전 강의를 통해 창업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특히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내년까지 마케팅 전문 멘토링을 받도록 하여 어려움을 해결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작년에 진행됐던 '뉴노멀' 이커머스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18명의 (예비)창업가들은 교육과 멘토링 지원을 받은 뒤 매다수가 상품 판매 성과를 도출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 통

익산시, 4월 30일까지  
임업직불금 접수

익산시가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1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임업직불금은 오는 30일까지 산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pay.foca.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이다.

임업경영체 등록 및 종사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는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교육 이수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임목의 유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교육부 '성인문해  
교육 지원사업' 선정

익산시가 교육부에서 공모한 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고보조금 4,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비문해·저학력 성인에 한글 및 기초교육,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기초문해교육 부문에 익산행복학교, 무궁화야학교, 동산사회복지관,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가 선정됐으며, 디지털문해교육 부문에 익산행복학교가 선정됐다.

공모 선정으로 올해 기초문해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학력인정과정, 왕초보영어과정 등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다채화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소외지역인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디지털문해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디지털 문해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장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